

PEOPLE

2025년 9월 3일 수요일



함평군공무원노조

수해 피해 성금 300만원 기탁

함평군공무원노조가 최근 수해를 입은 함평군의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했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군공무원노조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성금 300만원을 함평군에 기탁했다.

함평군공무원노조는 함평군 공무원의 근무 여건, 노사문화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 중인 노동조합이다.

이상의 군수는 “노사 상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함께 주시는 함평군공무원노조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군에서도 피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건협 광주전남지부

롯데백화점 광주점 건강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롯데백화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캠페인’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부는 백화점 직원들에게 건강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대 1 상담을 진행했다. 식습관과 운동습관 개선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 방법도 안내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으로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서부소방, 세계양궁대회 안전 점검

광주 서부소방이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에 나섰다

2일 밝혔다.

서부소방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개최되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안전대회를 최종 확인했다.

서부소방서장을 비롯한 조직위원회 및 관계자들은 연습경기장으로 쓰이는 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와 유사시 대응체계를 함께 점검했다.

특히 서부소방은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급차 등 소방력 배치, 사전 화재안전조사, 관람객 안전을 위한 신속대응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한다.

또 경기장 내·외부 위험요소를 사전 확인·제거하고, 경찰·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비상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함께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

광주시, 극심한 가뭄 강릉시에 ‘생수 1만병’ 긴급지원

강기정 시장 “고통 함께 나눈다”

지방정부 연대·상생 정신 실천

광주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를 돕기 위해 나섰다.

광주시는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 위기를 겪고 있는 강릉시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생산한 생수 ‘빛어울수’ 1만병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들을 돕고, 지방정부 간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빛어울수 1만병을 보냈으며, 앞으로도 강릉시와 긴밀히 소통해 가뭄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요즘 광주도 불과 2년 전에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물품 전달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강릉시민들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오전 시청 잔디광장에서 강원도 강릉 물 지원 환송행사를 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쳐 광주댐과 동북댐의 저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당시 광주시는 연산강

하천용수를 비상 취수하고, 물절약 캠페인, 수압밸브 조절 등 절수운동을 펼치며 물 부족 위기를 극복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1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모의재판 멘토링 프로그램’ 관계자 및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교육청·광주지법, 모의재판 진로멘토링 운영

중·고등학교생 72명 참여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대법정에서 학생 모의재판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교육청과 광주지방법원이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1학 교 1법관 진로멘토링’에 이어 추가로 마련됐다.

특히 고등학교생 5개 팀 37명, 중학생 5개팀 35명 등 72명이 참여해 지난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모의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참가 학생 모집, 프로그램 운영을 돕고, 광주지방법원은 현직 법관들의 멘토링과 시나리

오 심사, 실제 법정공간 및 물품 제공 등을 맡았다.

1일 진행된 모의재판을 위해 학생들은 8월 한 달간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등 꼼꼼히 준비해왔다. 멘토 판사와 소통하며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모의 재판 진행절차를 배우기도 했다.

이날 학생들은 한번의 배달(광주진흥고), 공권력의 정당성(금호고), 연구소에서 합성 유전체 유출(대광여고), 고액알바의 진실(문성고), 2025 고합2008호 업무방해사건(보문고) 등 직접 기획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다양한 모의재판을 운영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수 기자 joinus@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회의실에서 운영협의회를 열고, 현금 3000만원과 500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을 의결했다.

농협 광주본부, ‘사랑의 1004운동’ 운영협의회

현금·현물 8000만원 상당 지원 의결

농협 광주본부와 사랑의1004운동 운영위원회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현금·현물 지원에 나선다.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회의실에서 운영협의회를 열고, 현금 3000만원과 500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령 어르신, 중증 질환 환자, 호우·화재 피해 가정, 저소득 다문화·다자녀 가정 등 이다.

현금은 이달 중순 26명에게 전달되며, 현물은

다음달 중순 쌀 및 쌀 가공식품 1000세트로 마련돼 지자체와 복지기관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배분될 예정이다.

사랑의1004운동은 농협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802명에게 6억2200만원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더욱 활발히 전개될 예정이다.

김명열 위원장은 “사랑의1004운동은 농협 임직원들의 정성과 마음이 모여 이뤄지는 대표적인 나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영광군, 문화예술의전당서 ‘청소년 문화축제’

노래·댄스 본선 공연…“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영광 지역 청소년이 모여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열정의 무대가 펼쳐졌다.

2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지역 청소년과 군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영광군 청소년 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영광군이 주최하고 ‘청소년자람터 오늘’이 주관한 이번 문화축제는 ‘樂이 넘치는 청소년의 한마당 축제! 즐거움! 뽐내!’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활동과 축제문화를 활성화해 지역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YGY(Yeong-Gwang Youth) 페스티벌’ 본선 무대에서는 7개 팀이 노



래,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또 행사장에는 동신대학교와 연계한 상담심리학과 전공 체험을 비롯해 12개의 다채로운 진로·공방 체험 부스가 운영돼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



담양군의회, 제2기 의정보니터단 출범 담양군의회(의장 장영영)는 2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제2기 의정보니터단 위촉식·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산군-한국환경연구원, 기후위기 대응 업무협약 광주 광산군(구청장 박병규)은 2일 구청장실에서 한국환경연구원과 ‘시민 참여형 기후적응 정책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산군